

# 업무에 따라 월급 달라진다 공공기관 129곳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21곳 늘어  
획일화 벗어나 고난도 업무자 수혜  
공기업·준정부기관 도입비중 커

지난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수가 전년과 비교해 21곳 늘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70%가 해당 연봉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된 기존의 연봉제 보수체계에 직무급을 더한 것이다. 3가지로 세분화해 연봉을 지급한다. 이는 근무기간이나 직급에 따른 획일화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고난도 업무를 맡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꾸려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총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 수는 129개로 전체 공공기관(186개)의 69.4%에 달했다. 2023년(108개)에 비해 21개(19.4%)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도입 비중이 컸다. 총 87개의 공기업(32곳)·준정부기관(55곳) 가운데 81곳(93.1%)이 직무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정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99곳 중 48곳(48.5%)에서 실시 중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역시 비중이 전년(46.4%)보다 소폭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

를 거뒀다"며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성과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추후 실시되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선 총 인건비인상률 인센티브(0.1%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번 점검에서 유형별 최우수로 꼽힌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다.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한다. 오는 5월과 6월에는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국중부발전, 스미토모 USA, KOMIPO America, PPH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 중부발전, 美 신재생·가스발전 사업 확장

스미토모 USA와 공동추진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 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 3.21%... 소폭 개선

민간 3.03%... 의무 고용률 못미쳐  
1000명 이상 기업서 증가세 견인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

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환경부, 환경위기 대응 국제협력 강화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 개최

환경부가 환경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8일 서울 모처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가 참석했다. 또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등 한국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관계자 등 9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주한 대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탄소중립·자원순환·물관리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오는 6월 5일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 계획도 공유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환경 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고, 지역·국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전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키워 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지역난방공사, 안전관리등급제 '최고등급'

6년 연속 최고수준 안전관리 입증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획재정부가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 평가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2019년 시범도입부터 시행 6년차인 2024년까지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난이 획득한 2등

급은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난이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각 사업장별 현안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토론회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한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좋은 평가를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9일(화) 음력 : 4월 2일

수도권 날씨 8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4/20, 동두천 5/21, 가평 3/22, 양평 5/22, 용인 7/19, 평택 5/22, 수원 7/19, 인천 9/17, 파주 3/20, 서울 8/20, 백령도 8/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루비오 美국무, 캐나다 총선 앞두고 '51번째 주' 병합론 거리  
▲베트남·日총리 회담...美관세 대응 협력 등 논의할 듯 /사진 뉴시스

▲트럼프 "젤렌스키, 크림반도 포기 준비됐다 믿어"  
▲"日, 2030년 말레이 앞바다에 CO2 포집·저장...올 여름 각서 체결"

▲트럼프 관세에 스위스 프랑, 10년래 최고치...제로 금리 가나  
▲"日유권자 80% 이상, SNS 선거 정보 불신... '갑질 지사' 영향"